

201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①	2	④	3	④	4	⑤	5	②
6	①	7	④	8	⑤	9	⑤	10	⑤
11	②	12	①	13	④	14	③	15	⑤
16	③	17	④	18	③	19	②	20	③

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선생님은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을 통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악한 행동은 참된 앎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흄과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흄, 을은 스피노자이다. 흄은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라는 범신론(汎神論)을 주장하였으며, 세계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경향성, 즉 기호를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으며,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의예지의 사덕(四德)은 선천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4. [출제의도] 배려 윤리 이해하기

제시문의 '나'는 배려 윤리를 주장한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정의 윤리를 비판하면서 도덕 판단에서 책임, 관계, 상황에 대한 고려, 공감,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깨끗함과 더러움, 참됨과 거짓됨이 다르지 않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통해 서로 다른 교리와 종파 간의 논쟁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는 화쟁(和諍) 사상을 주장하였다. 지눌은 깨달은 뒤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으며,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입장 비교하기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선에 대한 관념, 좋은 삶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간주한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문화적 관습과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근거해 개인의 선과 좋은 삶의 기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7.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고, 사단과 칠정의 발하는 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고, 이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는 까닭이라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과 사상 비교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이다. 에피쿠로스학파는 쾌락이 행위의 목적이자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았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강조하며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ataraxia]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토아학파는 이성에 따라 자연적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고,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apatheia]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보았다. 왕수인은 사람의 마음이 곧 이치이며, 사람의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으므로 격물치지는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였다.

10. [출제의도] 벤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벤담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쾌락과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쾌락은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어 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상의 좋음인 곧 행복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사단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를 확충하여 사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이기적인 욕구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으며, 예를 통해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누구나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불교 사상의 입장이다. 불교 사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끊임없이 생멸(生滅)한다고 보고,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의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괴로움의 원인인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정도를 수행하여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13.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보았으며, 신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으며, 자연법은 신의 의지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였으며, 신의 은총을 통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법률이나 재판관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입법권을 수립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한다면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민들의 동의로부터 정치적 의무가 발생하며,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시비를 분별하지

않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고,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만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物我一體]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물(外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플라톤과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마르크스이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춘 정의로운 인간인 철인(哲人)이 다스리는 국가로, 수호자의 재산이 공유되는 사회이다. 또한 플라톤은 각 계층의 사람들은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생산 수단이 공유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17.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인 인(仁)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며, 사욕을 이겨내 예를 회복해야 한다[克己復禮]고 주장하였다. 또한 군주는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8.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무조건적 명령으로 보았으며, 이성을 통해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스스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한다고 보았다. 반면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을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았다.

20.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듀이이다. 듀이는 결과의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덕과 윤리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